

News

금리상승기 '예·적금 특판' 출시 두고 고민하는 은행들

조선비즈

시중은행들, 고금리 예·적금 특판 카드를 두고 고심... 예·적금에 대한 관심도 부활과 지속적 금리인상 대비 자금 유치 목적... 그러나 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운용 어려움도... 은행들의 예대율은 금융당국 규제 수준에 근접해있는 상황... 일부은행은 하반기특판 출시 등 고려 중이나 적극적으로 수신상품 모집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

리드코프 등 우수 대부업체 21곳, 시중은행서 자금조달 길 열린다

한국경제

금융당국,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 시중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 가능...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평가
대부업체들은 그간 2금융권 자금 조달로 차입비용이 연 5~6%였으나 연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핀테크 등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중개도 허용

토스뱅크, 출격 '성금'...혁신·실험으로 게임체인저 자처

데일리안

토스뱅크, 출범 한 달 앞두고 자체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지난 달 국내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금융앱은 토스로 조사결과 나타나...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이러한 플랫폼 정책으로 토스뱅크 예상 신규고객 유입 수는 350만 명으로 전망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대출 8월에만 두배 급증

헤럴드경제

카카오뱅크, 지난 6월 이후 중저신용 고객에 총 4,690억 원 공급했다고 발표... 8월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2,674억 원으로 7월대비 2배 이상 증가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해 중저신용고객 대출 이자 지원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1일 2회 이상 불가능

보험매일

변액보험 가입 시 진행하는 적합성 진단 평가를 하루 1회만 시행...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 예고에 따른 것
다만 금융위 행정지도는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 보험사별 진행 여부에는 차이 가능... 이번 조치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율 낮아질 것으로 전망

보험사, 상반기 순익 6조 육박... 금감원 "재무건전성 면밀히 살필 것"

머니S

상반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 6,77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9% 증가... 생보사 순이익 3조 1,468억원, 손보사 순이익 2조 5,302억원
ROA 0.86%, ROE 8.14% 기록... 금감원,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순익 및 재무 건전성 관련 선제적 조치 취할 계획 언급

주식투자 가능 ISA 가입자 5개월만에 100만명 돌파

연합뉴스

중개형 ISA 가입자 수 121만 9,493명으로 집계, 6월 말에 비해 34만 명 증가... NH투자, 삼성, 미래에셋 등 현재 8개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
중개형 ISA 출시 이후 은행 ISA 가입자 중 상당수가 증권사로 이동

파월 "연내 테이퍼링 시작 가능"...금리인상엔 "갈길 멀다"

연합뉴스

파월 연준 의장,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의 시작이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하겠다는 뜻 밝혀
코로나19 사태와 고용 회복세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 비둘기적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